

이동재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022년 7월 28일

TUHH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2022 SoSe

1. 출국 전

TUHH 등 대부분 독일 대학들을 갈 때 고려할 점은, 독일의 개강 시기가 한 달 정도 늦다는 것 입니다. TUHH는 4월에 봄-여름학기 개강, 10월에 가을-겨울학기 개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방학이 없으며, 여기서 만난 일부 석사과정 친구들은 시험이 늦게 끝나서 봄학기 시작 일주일 전에 (3월 말) 겨울 학기 시험이 끝났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로 한국에 돌아와 복학 할 예정이라면 이것을 고려하여, 시험 일정을 확인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TUHH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본인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제때 내면 됩니다. 기숙사 등록 관련 메일이 오는데, 기간을 잘 지켜서 꼭 등록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가격은 대략 월 350유로 근처 입니다. 함부르크는 독일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며, 집을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두명에서 투룸 방을 잡았던 대만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당 700유로, 총 1400을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비자 또한 먼저 받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전 후기들을 보면, 쉥겐 조약으로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먼저 들어간 후 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현재 코로나 이후 독일이 행정처리를 너무나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비자 테어민을 너무나 늦게 잡아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4월에 독일에 입국 하였고, 4월 중순 신청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테어민을 잡아주지 않아서 한국 돌아오는 시기인 8월까지 결국 약속이 잡히지 않았고,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독일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어민 없이 아침에 구청에 가서 줄을 서서 필사적으로 부탁해서 임시 거주증을 받으러 가는 것이 가능한 하나, 매우 성가시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비자 받고 가는 것이 속 편합니다. 임시 거주증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는 독일어로 된 문서이며 독일 내에서만 유효한 거주증이라 타국 여행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쉥겐 국가 사이에서는 입국 심사가 및 국경 검사가 없기 때문에 몰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셥겐 비EU 국가인 영국 혹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여행 시 문제가 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임시 거주증을 인정해주는 것은 순전히 입국 심사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여행을 해도 된다면 비자 없이 가도 되지만, 그냥 미리 준비 해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2. 학교 분위기 및 수업

학교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TUHH는 Harburg 라는 동네에 위치하였습니다. 원래 하부르그는 함부르크와 독립적인 도시였으나, 함부르크에 흡수된 동네입니다. 함부르크를 가로지르는 엘베 강을 기준으로 남쪽이 하부르그이며, 함부르크의 중심과 꽤 떨어져있습니다. 기숙사 또한 학교 근처로 잡아주기 때문에, 모두 하부르그에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Neuwiedenthal 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는 심지어 하부르그에서 20분 정도 더 멀리 떨어진 동네 입니다. Neuwiedenthal 이 아닌 다른 기숙사에 배정받는다면, 위치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들의 형태는 모두 방은 개인실을 쓰며,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나눠서 씁니다.

학교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체감상 아랫공대와 농생대를 합친 규모 정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멋있는 외국 캠퍼스를 누비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적절하지 못한 선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학교 축제는 서울대학교 축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학업 관련해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전반적으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느낀 못했으며, 교환학생들이 독일인들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건축학파이지만, TUHH에는 건축학과가 없기 때문에 교양 수업만 들어서 전공 수업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교양 수업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자면, 대부분의 교양 수업들(TUHH에서는 NTA라고 부릅니다.)은 7월 쯤 종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전공 수업들도 대부분 6월 말~7월 초에 끝나나, 아주 드문 경우 9월까지 넘어가는 것 같으니 수업 일정을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NTA 수업 두 과목만 들었기 때문에 전부 7월에 끝나서 종강 및 복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TUHH도 NTA 수업들은 '꿀강의' 라고 불리는 재밌거나 쉬운 수업들은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작되는 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학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기 등록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학기 등록을 수강신청 시작보다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TUHH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걸 보고 하면 늦습니다.) 그 사이 교양 수업이 다 찻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학기등록을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Matrikelnummer (학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을 받아야 정식으로 학기 등록이 된 것이며, TUHH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지 등록(기숙사 배정받으면 그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독일 은행 계좌, 독일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TUHH 메일에서는 Deutschbank, Sparkasse 등 일반 은행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은행의 경우 약속을 잡고 직접 창구에 가야 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N26 등 온라인은행 계좌는 핸드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미리 한국에서 N26 계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 건강보험 또한 완전히 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도, 메일을 보내서 Certificate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보내줍니다. 미리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미리 학기 등록을 마치면, 수강신청 전에 학교 아이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신청 외에도, 학기 중에 시험등록 기간이 있는데, 시험을 치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시험등록을 해야만 학기에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 함부르크 생활 및 문화

도시 분위기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독일의 치안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밤에 막 돌아다녀도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동네입니다. 각종 전시회나 연주회, 페스티벌 및 공연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미술관도 많으며, 엘브필 하모니, 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클래식 공연들도 있고, 뮤지컬도 유명합니다. 다만, 독일어로 공연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 못한다면 제대로 즐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꼭 고전적인 공연을 즐기지 않더라도, 다양한 페스티벌과 콘서트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음악을 좋아한다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엄청난 양의 행사들이 열리는데, 라인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 아티스트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면, 내한을 잘 하지 않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고 오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꼭 독일이 아니더라도 주변 국가에서도 페스티벌과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다른 나라를 다니며 도시를 같이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5월 말부터 8월까지

엄청난 축제들과 공연들이 열리는데, 이를 찾아가면서 그 나라도 구경하는 방식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독일의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꼽으면, 테크노가 빠질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음악 장르라서 독일 어느 지역을 가든, 테크노 클럽을 항상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다크 테크노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보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음악에 빠져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독일에서 테크노 클럽을 한 번 짚은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독일은 나름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함부르크는 독일에서도 상당히 물가가 높은 편입니다. 외식을 한다면, 정말 간단한 음식이라도 돈이 쪽쪽 빠지기 때문에, 주로 요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는 싼 편이나, 다른 유럽 지역들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비싼 편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후반에는 식품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느낀 점은, 도시 계획이 정말로 잘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밀도가 서울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쾌적한 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심의 시끌벅적한 에너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 우선의 좋은 보행환경이며 대중교통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너무나도 크게 잘 되어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떠올렸을 때, 이상적 도시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부르크 뿐 아니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다른 대도시들 모두 너무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살고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 여행

교환학생의 꽃은 여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함부르크는 사실상 북유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유럽 나라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북유럽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직접 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의 북유럽 여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나 기차, 버스가 많기 때문에 어디든 적당한 가격과 거리로 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함부르크에서 가는 비행기가 많기도 하며, 베를린도 비행기가 많은데, 베를린까지도 4유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 선택권이 매우 늘어납니다. 저같은 경우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부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많은 나라를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었습니다.

5. 후기 및 아쉬운 점

큰 기대를 하고 떠난 독일이지만, 그만큼 실망하지 않고 기대를 만족시킨 교환학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리더라도 아끼지 말고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것이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은 축제와 공연들을 보러 가지 못한 점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한번 올라 말까 하는 아티스트들이 동네 축제마냥 정말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연 계획을 따라서 여행지를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학기는 날씨도 좋고 도시들도 활기찬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연을 보러 가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독일 자체도 정말 크고 볼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을 구석구석 더 다녀볼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 듯 합니다.